

2007 아시아 청소년컵 스포츠클라이밍 金·銀

고사리손으로 인공암벽을 오르며 흘렸던 광주 어린이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암벽장으로 달려갔던 김한울(13·지산초 6년) 군과 조승운(13·양산초 6년)군이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주최로 열린 '2007 아시아 청소년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ASIAN YOUTH CLIMBING CUP 2007) 난이도 부문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초등학생으로는 한국 최초로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선 쾌거였다.

광주 초등생들 靑 정상 오르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린 이번 대회 SpiderKids C (13~14세)부문에 일본,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8개국에서 28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했다. 한국은 초등 부문 랭킹 1, 2위인 김군과 조군 등 6명의 대표선수를 파견했다. 김군과 조군은 상위 10명을 가리는 예선을 공동 1등으로 통과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27개의 인공 홀드

도 이상)을 정복할 정도로 소질을 타고났다. 국내대회도 수차례 휩쓸었다. 경기를 치르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햄버거·피자 등으로 끼니를 때워야했다. 경기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대 선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우승을 거머쥔 김군은 "상대의 실력을 몰라 불안했지만 그것이 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07 아시아 청소년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김한울(왼쪽)군과 조승운군(오른쪽)이 광주 상무 실외 암벽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클라이머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두 어린이는 지난 13일 귀국 직후에도 상무 실외 암벽장을 찾아 맘을 즐겼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난이도 부문 김한울·조승운 쾌거

"장차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꿈"

(hold) 중 26개를 잡은 김군이 일본의 요우가 선수와 조군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군도 똑같이 26번째 홀드를 터치했지만 추가 동작이 이뤄지지 않아 아깝게 2위에 머물렀다.

정상에 오른 김군의 체격은 139cm의 키에 30kg. 이 작은 체구로 아시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클라이밍을 처음 권유한 어머니 구진숙(40)씨와 아버지, 누나와 동생까지 클라이밍을 사랑하는 '거미' 가족인 덕에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조막만한 손으로 시작한 김군은 3년 만에 요세미티 등급(5.0~5.14b까지) 중 5.13급(경사 80

도 이상)을 정복할 정도로 소질을 타고났다. 국내대회도 수차례 휩쓸었다.

149cm의 키에 35kg인 조군은 5.12c급의 실력. 김군의 최대 라이벌인 조군은 전형적인 연습벌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빛고을 실외 암벽장'을 운영 중인 아버지 조계주(41)씨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클라이밍 기술을 배웠다. 일주일마다 두 번 상무 실외 암벽장과 선운산 암벽장을 찾아 실전 감각을 익히며 훈련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두 어린이의 실력은 1, 2위를 다룰 정도로 막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기량이 달라질 것이기에 선

경장의 우측 손등과 김모(51) 경사의 좌측 발목을 물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지구대의 기틀 등을 손괴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이날 공사장 동료 김모

(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김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먹살잡이

▲상처 없는 폭행 등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행위뿐 아니라 ▲경찰관 상해 ▲지구대 내 기틀 손괴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지역 경찰사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2005년 160건 ▲2006년 175건으로 9.3%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08건이 발생하고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동=정문기자 eunjung@

변심 내연녀 3일간 감금 폭행

북부경찰, 4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16일 내연녀가 만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납치 감금 폭행한 박모(47·화순군 한천면)씨를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J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 정모(여·44)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뒤 3일 동안 광주와 화순 등지를 끌고 다니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박씨는 "정씨가 자신을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내연녀와 승용차를 화순 인근 야산에 버리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최근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1시간 여 동안 자동차 추격전을 벌인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결별 요구에 불만을 품고, 정씨 집에 들어가 옷을 훔쳤으나 자신을 절도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해킹' 10여만명 정보·아이템 가로채

빛나간 19세 '컴퓨터 수재' 검거

경기도 고양경찰

경기도 고양경찰은 16일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킹 대상이 키보드를 조작하는 대로 읽을 수 있는 키보드 해킹툴인 '후킹' 프로그램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게임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8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게임 카페 게시판 등에 '후킹' 프로그램을 '게임을 위한 테스트 버전' 등으로 위장 유포한 뒤 이를 다운받아 실행하는 사람의 1차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을 알아낼 수 있는 2개 프로그램도 활용

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10여만명의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모 인터넷 고교를 졸업한 A씨는 중3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국 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컴퓨터 수재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일뉴스

우렁이 잡던 70대 숨겨

지난 15일 오후 5시에 고충군 남양면 신흥리 농수모에서 우렁이를 잡던 마을 주민 조모(여·73)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함께 우렁이를 잡던 박모(여·60)씨는 탈진한 상태에서 다른 마을 주민(67)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우렁이를 잡다 발을 헛디뎠다. 수심 2m의 깊은 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충=주각종기자 gjju@kwangju.co.kr

광주지법 '年 437% 이자' 사채업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법정최고이자 3~4배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 윤남동 모 피아노학원에서 A씨에게 65일간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90만원에 대해 연 437%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2~

11월까지 광주 시내에 명함형 광고를 뿌린 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 12명에게 3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262~437%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광역시 중구... 367-9000

나원침 (7263) 김장동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목사가 절에서 조경석·나무 옮겨

○-자신의 교회 조경을 위해 사찰의 조경석과 나무를 옮긴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조경석과 편복을 옮긴 혐의로 기소된 목공예사 조경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이씨가 남의 땅에서 허락도 없이 자연석과 편복 수천만원어치를 옮긴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

○-이씨는 교회에 연못을 만들기 위해 건축자재를 물색하던 중 지난 3월 초 나주시 다시면 B사찰 맞은 편 땅에 쌓여 있던 편복 150여 개와 자연석 80여 개, 장대석 50여 개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트럭을 이용해 옮긴 혐의로 기소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 판매... 367-9000